



국제문화예술아카데미 x 사비나미술관 신청안내

(03310) 서울시 은평구 진관1로 93 T.02-736-4371 www.savinamuseum.com



1. 프로그램 구성

- 대 상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전 학년 (연령별 맞춤 진행)
- 인 원 : 회차당 20명 (1개 반 20명 기준 / 2개 반 동시 진행시 최대 40명 가능)
- 기 간 : 2026. 6월 ~ 12월
- 소요시간 : 약 90분 소요

소요시간	내 용		장 소
5분	미술관 예절교육 - 작품감상 방법 (작품과의 거리유지, 작품설명 읽기 등) - 미술관 관람예절 (질서유지, 소음자제, 휴대폰 사용자제 등)		전시실
30분	현대미술 이해 - 미술관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전시 감상 - 현대미술로 보는 환경, 생태 문제		
각 35분	고상우 작가	(PPT) 고상우 작가의 공익 프로젝트 및 청주동물원 영상 자료 멸종위기 동물초상의 드로잉을 통한 창의성 교육프로그램	교육실
	강운 작가	(활동지) 나의 감정 들여다보기 색과 질감을 활용한 감정표현 중심의 창의성 교육프로그램	
	이명호 작가	(PPT) 남태평양 키리바시(Kiribati) 섬의 위기 '드러내다, 들어내다'의 개념에 대한 창의성 교육프로그램	
20분	성과 전시 및 공유 - 발표 및 정리		

※ 전시기간 및 프로그램 일정과 구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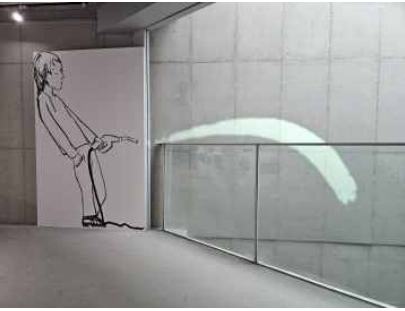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5.14 (목) ~ 5.22 (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infosavina@hanmail.net 발송
 ※ 전자우편 및 첨부파일 제목 [파일명_학교명_담당선생님명_1순위희망일자] 로 기재
 예시) 국제아카데미신청서_00초등학교_홍길동_신청일
- 선정기준 : 신청학교 선착순 마감
- 선정결과 : 5.27 (수) 선정학교 개별 안내


3. 문의

- 사비나미술관 박혜진 T.02-736-4371 / infosavina@hanmail.net

붙임 : 세부전시 및 프로그램 안내

①	기 간	6. 4. ~ 8. 16.	
	전시명	주요내용	대표 이미지
	<p>고상우 개인전 《Still Breathing: 아직 숨 쉬고 있다 - 상처 입은 동물을 위한 생명 존중의 연대》</p>	<p>고상우는 푸른색의 동물 초상으로 널리 알려진 작가로 멸종위기 동물, 생태환경, 사회적 약자 등 동시대의 쟁점을 탐구해왔다. 《Still Breathing》은 인간의 욕망과 시스템 속에서 상처 입은 동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외면해 온 사회적 약자와 가장 취약한 존재들의 현실을 비춘다. 고상우는 인간의 탐욕과 현대사회 시스템 속에서 고통받는 동물의 현실을 날카롭게 직시한다. 마스크라 실험의 테스트로 희생되는 토끼 '랄프', 상실과 고립 속에 탈출을 감행했던 얼룩말 '세로', NLL 해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경계를 지워낸 점박이물범과 같은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생명 존중의 연대를 전한다.</p>	 
	<p>질라 로이테네거 개인전 《슈퍼 트루퍼: 살아남은 자들》</p>	<p>스위스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질라 로이테네거의 아시아 최초 개인전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드로잉과 모노타이프 판화, 비디오, 설치가 결합된 독창적인 작업을 선보인다. 《슈퍼 트루퍼: 살아남은 자들》은 멸종위기 동물이나 유기견처럼 평소 인간의 관심 밖에 머물던 타자들을 조명으로 비추고, 이와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을 나란히 드러낸다.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롭게 제작된 고래 형상의 모노타이프 연작은 흰긴수염고래, 향유고래, 혹등고래처럼 거대하지만 멸종 위기에 처한 생명체들을 조명한다. 미술관 4층에서 3층으로 쏟아지는 휘발유의 폭포 연출을 통해서도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에너지 사용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작가는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기후 위기와 생태적 책임감에 대해 말한다.</p>	 
	<p>국제문화예술 프로그램</p>	<p><STILL BREATHING 드로잉> 작가의 동물구조 활동과 청주동물원의 야생동물 아카이브를 살펴보고 구조된 동물과 상처받은 동물에게 전하는 드로잉 프로그램</p>	

②	기 간	8. 26. ~ 10. 11.	
전시명	주요내용	대표 이미지	
강운 개인전	<p>구름 작가로 널리 알려진 강운은 자연물의 이미지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사유와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텍스트를 캔버스에 쓰고 색으로 덮어 감정의 층위를 색과 질감으로 표현한다.</p> <p>그의 '마음산책' 연작은 감춰진 아픔과 치유의 과정을 그린 작품들이다. 사랑, 이별의 추상적 감정부터 민주화운동, 코로나19의 사회적 이슈까지 반영하여 인간의 내면에 대해 탐구한다.</p> <p>강운은 매일 아침 드로잉을 그린다. 그의 드로잉은 하루의 호흡에 따라 달라지는 마음을 수련하고, 그 흐름을 돌아보는 과정이다.</p>		
국제문화예술 프로그램	<p><나의 마음챙기기> 색과 질감을 활용한 감정표현 중심의 창의성 교육프로그램 개인의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청소년 마음 건강 프로그램</p>		

③	기 간	10. 21. ~ 12. 13.	
전시명	주요내용	대표 이미지	
이명호 개인전	<p>이명호는 '나무 연작'으로 잘 알려진 작가이다. 그는 들판의 나무 뒤에 흰 캔버스를 설치한 뒤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풍경 속 나무를 하나의 존재로 드러낸다. 작가는 한국뿐 아니라 뉴욕, 아부다비, 런던 등 여러 도시에서 작업을 진행하며 대상과 환경,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탐구해왔다.</p> <p>이번 전시에서는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키리바시 섬에서 작업한 최근 시리즈를 중심으로 선보인다.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키리바시 섬은 계속 가라앉고 있으며, 주민들은 점점 떠나고 있다. 이명호는 이 작업을 통해 단순한 풍경 기록을 넘어, 환경 문제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p>		
국제문화예술 프로그램	<p><배경과 나> '드러내다, 들어내다'의 개념에 대한 창의성 교육프로그램 작가의 작업 방식을 이해하고 '배경'과 '주인공'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프로그램</p>		